



도연명 시집
도연명 지음

도가 무위자연 추구한 도연명

중국 고전 시가를 대표하는 시인 도연명의 작품을 묶은 시집이 나왔다. 도연명은 동진(東晉)에서 송(宋)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에 개성과 지조를 견지했던 사람이다. 연암서가 펴낸 '도연명 시집'에는 한평생 지조를 지키며 시와 벗고 살았던 도연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도연명은 도가의 무위자연을 추구했던 문인이었다. 그는 대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옹고 그릇을 따지는 것에서 한발 짝 물러나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 삶의 터전인 전원에서 직접 농사지으며 도가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그의 시문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평이해 당대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최고 시인으로 추앙받을 만큼 문학성을 인정받는다. 시에 깃든 무위도가의 시풍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다. <연암서가·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연상징
메리 더글러스 지음

자연상징은 인간 몸, 문화의 상징

현대의 가장 뛰어난 인류학자로 꼽히는 메리 더글러스의 '자연상징'은 몸의 사회적 의미부터 종교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지적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를 보여준다.

저자는 원시사회, 고전 종교, 현대사회를 넘나드는 폭넓은 비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의 유형과 우주론의 관련성을 도식화한다. 사실 모든 문화는 인간 몸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자연화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한다. 즉 피, 뼈, 호흡, 배설물에 대해 그러한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점을 둔다.

저자는 종교뿐 아니라 세속 상징에 대해서도 지적 편력을 펼쳐 보인다. 그로 인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적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책이 첫 출간된 지 반세기가 가까운 시점에 국내에 번역 소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에 있어 현대 고전의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다. <이학사·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염병으로 보는 인간 사회의 민낯

말라리아의 씨앗

로버트 데소비츠 지음



“국경이라는 경계선은 인간이 만들어 낸 정치적 환상일 뿐, 병원체가 국경을 넘는 데는 비자가 필요 없다.”

열대 의학의 거장 로버트 데소비츠가 바라보는 전염병에 대한 특집이다. 그가 들려주는 전염병 이야기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실체를 생각하게 한다.

기생충학과 감염질환의 권위자 로버트 데소비츠가 펴낸 '말라리아의 씨앗'은 전염병과 인간 사회에 대한 보고서다. 저자는 전염병을 매개로 그 이면에 자리한 인간 사회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준다.

지난 20년간 생명공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열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박멸과 관리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시행돼

'인류의 천형' 말라리아

비밀 밝히기 노력과 좌절

그리고 인간적 상처 이야기

온 치료법들이 새롭게 출현한 저항성 미생물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저자에 따르면 작금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왔다. 아프리카를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된 뒤에야 백신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데 있다.

애초에 말라리아 연구는 식민지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보다 서양 열강의 군인과 관료, 상인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전염병이 '소의' 문제와 관련되는 건 이 때문이다. 비유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나 사람들만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사실 아프리카는 슬픔의 대륙이다. 한 질병이 다른 질병에 기생해 자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아이들이 치료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는 일도 다반사다. 어린이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심각한 빈혈이다. 생명 유지를 위해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문제는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헌혈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시행돼

에이즈나 에볼라는 일종의 낙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한 번 박멸되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염병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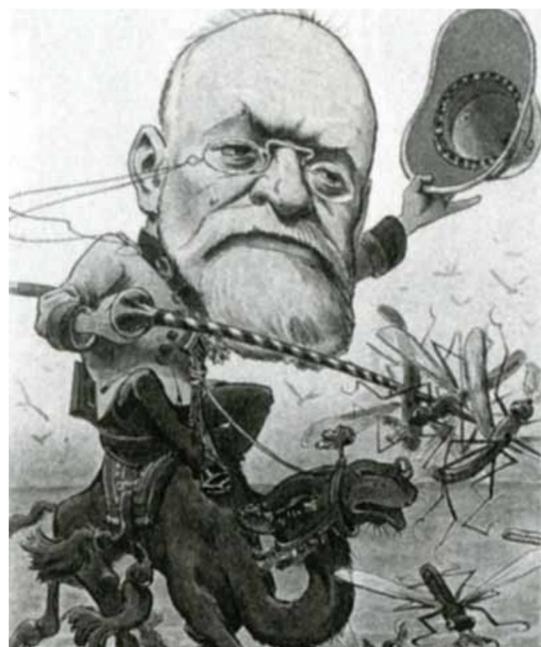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면서 위험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환경의 제 변화에 따라 전염병은 언제든 발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염병은 인간과 사회를 향한 근원적인 질문 그 자체다.

저자가 현대 과학계의 문제를 매섭게 꼬집는 이유다. 사실 인류를 괴롭혀 온 말라리아를 치료할 백신을 꿈꾸었지만 생각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비를 받고도 말이다.

'실험실 안' 학문에 행적 관료들이 지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연구비 유용(백신 사기극)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백신 개발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침묵과 열광의 이중적 모습도 원인이다 ('황우석 사태'와 닮은 점이 없지 않다).

"지역 주민들과 보건인들이 함께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있어 행동의 변화란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 온 관습과 전통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만을 쌓아온 보건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지시이고 현실의 간극을 좁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후마니타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매독균의 전자현미경 사진(위)과 알폰스 라브랑이 모기를 물리치는 모습을 그린 1909년 과학잡지 삽화.

일상생활서 꼭 알아야 할 상식 500가지



1%를 위한 상식백과
베탄 패트릭·존 톰슨 지음

샌드위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그 유래를 따라가보면 재미있는 일화를 만나게 된다.

사연은 이렇다. 영국 남동부 켄트지방에 거주하는 샌드위치 백작 4세(1718~1792)는 도박광이었다. 도박에 심취했던 그는 배가 고파도 카드 게임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고

민했다. 그는 1762년 중등과 근동지역 여행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다. 결국 그는 두 조각의 빵 사이에 속을 채운 간식을 만들어 먹었다. 흔히 알려진 샌드위치의 기원이다. 이로써 샌드위치 백작 4세는 자신의 작위(爵位)를 남기는 업적을 이룩했다.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상식 500가지를 선정, 주제별로 묶은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의 작가 베탄 패트릭과 존 톰슨이 펴낸 '1%를 위한 상식백과'는 주위에서 접하는 물건뿐 아니라 전통으로 이어져 온 관습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하게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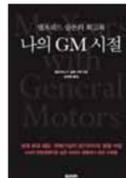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팝콘은 누가

맨 처음 먹게 되었을까? 경례는 누가 맨 처음 하였을까? 가발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아쉬운 1%를 위한 상식백과'라는 긴 부제가 말해 주듯 책에는 생활과 관련한 재미있고 기발한 역사가 담겨 있다.

책은 주제에 따라 음식과 음료, 계절과 축제, 예법과 관습, 상징과 표시, 주거공간과 생활 공간, 의류와 액세서리 등 모두 아홉 장으로 구성돼 있다. 다채로운 내용도 달리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진실은 하나로 집약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다. <씨네스투·2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설적 경영자의 GM시절 회고록



나의 GM 시절
엘프리드 P 슬론 2세 지음

20세기 전반 미국 제너럴 모터스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전설적인 경영자 엘프리드 P. 슬론 2세의 GM시절에 대한 회고록 '나의 GM 시절'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슬론이 90세로 세상을 뜨기 2년 전인 1964년 출간된 책은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직까지도 경영자와 경영학도 사이에 애독서로 남아 있다.

슬론의 대표적 경영철학은 '사실에 입각한 신중한 의사결정'이다. 이를 통해 회사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작고 검은 수첩'에 철저히 메모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회사 전반을 꼼꼼히 챙겼다. 회사경영 외에는 아무 취미가 없었고 '전문경영자는 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몸소 보여줬다.

GM의 전문경영자로 일한 40년의 경험에서 얻은 실제적 교훈들을 들으며 독자들은 현대경영의 기본원리가 나오게 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동시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코리아·2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주(주) 빛길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시공 /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